

판소리 문학의 ‘비극적 상황’ 관리 전략

이해진*

<차례>

1. 서론
2. 판소리 문학에 형상화된 ‘비극적 상황’의 특징
3. 담화상의 ‘비극적 상황’ 관리 전략
 - 1) 해학적 완화 전략 :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기
 - 2) 도덕적 위안 전략 : 옛 성인들의 사례에 기대기
 - 3) 예지적 대체 전략 : 미지의 것을 앞의 형태로 바꾸기
4. 결론

<국문초록>

판소리 문학에서는 특별히 고상하지도 저열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을 인물로 내세워서 여러 비극적 상황과 그에 대한 인물의 감정적 반응을 그려낸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서민들의 감정이입과 공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판소리 문학에 형상화된 비극적 상황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러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종종 동원되는 몇 가지 담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은 대개 평범한 서민 주인공이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인공이 해당 상황을 쉽게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성격을 띠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물의 감정적 반응 역시 매우 확장된 형태로 제시되면서 비극성이 한층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를 마냥 방치하지 않고 때때로 그것을 관리하는 담화 전략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는 감상자들의 감정 관리 방식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해학적 완화 전략’, ‘도덕적 위안 전략’, ‘예지적 대체 전략’은 모두 비극적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주목의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그 상황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을 덜 슬프고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내적 방어 전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단지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선량한 개인이 당장 자신의 힘만으로 세계를 바꿀 수 없을 때, 삶을 지속하면서 사필귀정의 미래를 기약하게 하고, 부정적 감정에 완전히 함몰되어버리지 않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판소리 문학의 '비극적 상황' 관리 전략은 당시 판소리 향유층을 위해 그리고 판소리 향유층에 의해 마련된,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전략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삶과 이야기 방식을 고민하는 데에도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다.

판소리 문학, 비극적 상황, 담화 전략, 상황 관리, 감정

1. 서론

판소리 문학은 대개 인물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맺고 있어서 비극(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서사의 진행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인물들은 여러 심각한 비극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천벽력과 같은 생이별의 순간, 찢어질 듯한 가난의 굴레,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기 등등.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게 고상하거나 저열한 사람이 아닌,¹⁾ 보통 사람에 해당하는 인물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북돋우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보다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감정이입, 공감이라는 말로 환기할 수 있는 측면은 판소리 문학에서 그만큼 '감정'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²⁾ <광대가>를 보면 판소

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더 잘난 사람을 모방하면 비극, 더 못난 사람을 모방하면 희극이라고 했다.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22쪽.

리 창자의 너름새를 두고 '좌상의 풍류호걸 구경하는 노소남녀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이 구성 이 맵시가 어찌 아니 어렵겠냐고³⁾ 하였는데, 너름새라는 것도 사실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이고 보면,⁴⁾ 이 '울고 웃기기'야말로 판소리 문학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울고 웃기기란 곧 '감정 다루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판소리 문학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비극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극적 상황은 이른바 해소 또는 해결을 요하는 문제 상황이다. 판소리 문학이 평범한 인물을 내세워서 일반 서민들이 겪을 만한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상황과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은 현실 세계 속 청중 및 독자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한편, 또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확률이 크다.⁵⁾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

- 2) 물론, 판소리 문학을 포함해 어떤 인물이 겪거나 행하는 사건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서사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함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장르다. 일찍이 김만중이 <삼국지연의> 속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들으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며 울기까지 하고, 또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즐거워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예로 들어, "이것이 통속소설이 지어지는 이유"라고 한 것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한 발언이다(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2010, 654~655쪽). 판소리는 이렇게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서사문학의 기능을 잘 체화한 다음, 공연의 현장성에 힘입어 더욱 전경화시킨 장르로서, 창본, 사설, 소설에 두루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좌상의 풍류호걸 구경하는 노소남녀 울게하고 웃게하는 이귀성 이맷시가 엇지아니 어려우며' 신재효, 강한영 교주, <광대가>,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민중서관, 1971, 669쪽. 여기서 '노소남녀(老少男女)'라는 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대와 성별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같은 <광대가>에서 사설치례에 대해 "시는 쓰고 웃게하기 더단니 어렵구나"라고 했다. 신재효(1971), 위의 책, 669쪽.
- 5) 파스칼 루덕은 "최고의 예술작품과 소설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매우 값진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르쳐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선화와 동

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은 여기서 제기될 수 있다.

기왕에 허원기는 조선 후기에 심화된 심성론(心性論)이 인간 감정의 문제를 중시하였으며, 예술 미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 바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상층 양반들은 희락(喜樂)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감정 처리에 유념했으나, 기층 서민들은 애로(哀怒)로 대표되는 부정적 감정 처리에 유념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자의 측면에서 판소리의 미학과 심성론의 관계를 논의하였다.⁶⁾ 여기서 언급되는 ‘기층 서민들의 애로로 대표되는 부정적 감정 처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과 그것을 관리하는 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이 확보된다.

본고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의 관리⁷⁾에 담화(discourse)가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⁸⁾ 판소리 문학 담화의 큰 두 축을 담당하는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발화를 함께 살펴서 그 양상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연구 대상은 전승 5가를 중심으로 판소리 창본, 사설, 소설 텍스트를 두루 다루고자 하는데, 매체의 차이를 넘어 연구 내용을 보편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해서다.

논의는 먼저 2장에서 판소리 문학에 형상화된 비극적 상황의 특징을 알아

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파스칼 루덕, 「허구적 감정」, 다비드 산테레 외 지음, 김린 옮김, 『감정의 힘』, NUN, 2016, 153쪽.

- 6) 허원기, 「판소리 미학의 사상적 세 층위」,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 300~304쪽 참조.
- 7) 보그란테·드레슬러는 텍스트성의 한 구성 요인인 ‘상황성’을 설명하면서,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상황을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상황 관리(situation management)’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텍스트에 나타난 증거를 기술하거나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한 상황에 단순히 반응만 보이는 행위인 ‘상황 점검(situation monitoring)’과 구별하였다. 보그란테·드레슬러, 김태욱·이현호 공역, 『담화·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1991, 120쪽 및 154쪽 참조.
- 8) 보그란테·드레슬러에 의하면 “담화행위는 인간이 통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반적인 책략들의 실현”이다. 보그란테·드레슬러(1991), 위의 책, 173쪽.

보고, 3장에서는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데 때때로 동원되는 몇 가지 담화 전략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판소리 문학 속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이 당대 감상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2. 판소리 문학에 형상화된 '비극적 상황'의 특징

춘향은 이 도령의 느닷없는 이별 통보에 항의도 애원도 해보지만 끝내 막지 못했고, 신관사또의 부당한 수청 요구 또한 무사히 면할 길 없어 옥방 신세를 져야만 했다. 또, 흥부는 갖은 품팔이 끝에 매품팔이까지 생각했으나 혹독한 가난을 이길 수는 없었으며, 심청은 아버지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결국 자기 몸을 제수로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자신이 육지에서 겪는 팔난(八難)을 꿰뚫어 본 자라에게 깜빡 속아 수궁으로 향한 토끼, 그리고 줄지에 전쟁터로 끌려나온 조조의 장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지(死地)에 내던져졌던 것이다.⁹⁾

이렇듯 판소리 문학에서 형상화되는 비극적 상황은 대개 평범한 서민 주인공이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타개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이 그 상황을 쉽게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물론 실제 현실의 문제를 보다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허구의 특성과 관련이 있겠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판소리 문학 속 주인공이 당면한 문제 상황이 신분, 권력, 빈부, 이념의 문제 등 커다란 사회 시스템 차원과

9) 토끼의 경우, 그가 자라의 꾀에 빠져 수궁행을 결정한 데에는 출세 욕망이 작용한 것이어서 토끼에게도 얼마간 책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궁에 갔을 때 자신이 죽을 거라는 낚새를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토끼는 결코 자라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¹⁰⁾

판소리 문학의 비극적 상황이 지닌 이러한 특성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인기를 끌었던 영웅소설과의 비교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웅소설(일명 창작군담소설)의 주인공은 훌륭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선천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가 맞닥뜨리는 고난 역시 사회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전생에서 예비된 개인적인 운명에 의한 것¹¹⁾이다. 그래서 고아(孤兒)됨, 굶주림과 같은 문제 상황은 주인공에게 비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부조리, 모순의 결과로 인지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곧이어 그런 문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조력자를 만나는데, 이는 판소리 문학의 주인공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판소리 문학 속 비극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가 사회적 부조리, 모순으로 인해 문제성을 띠는 점은 그에 상응하는 인물의 감정적 반응이 매우 확장된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비극성이 한층 고조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판소리 서사체의 독특한 서술적 특징인 ‘장면극대화’¹²⁾의

10) 김명순은 아스퍼스가 제시한 ‘비극적 구조’를 원용하면서 ‘비극적 발달’이란 주인공이 직면한 갈등의 대상으로, 갈등의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는 ‘개인과 전체의 대립’도 있는데, 여기서 ‘전체’에는 신분, 지위, 관직 등 사회적 힘이 집약되어 있다(김명순, 『고전소설의 비극성 연구』, 창학사, 1986, 7~9쪽 참조). 물론 판소리 문학은 전체 서사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서구적 개념에서의 비극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으나, 인물이 맞닥뜨린 상황의 측면에서는 그 비극성에 대해 충분히 언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11) 대표적인 사례로, 본디 용왕의 아들로서 인간 세상에 비를 그릇 준 죄로 옥황상제에 의해 적강되어 태어난 인물인 소대성, 전생에 자미성으로서 무도한 익성과 맞서 싸우다 득표하여 지상에 태어난 유충렬의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완판 40장본 〈소대성전〉, 정명기 외, 『교주 소대성전』, 보고사, 2018, 364쪽; 완판 86장본 〈유충렬전〉, 신해진 역주, 『완판방각본 유충렬전』, 보고사, 2018, 163~164쪽 참조.

12)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205~207쪽. 김대행은 판소리의 구성상의 특징 중 하나로 ‘장면극대화의 현상’을 들면서, 이는 판소리 한 편 전체로 볼 때는 당창적이 된다 할지라도 주어진 장면장면을 최대한으로 설득력있게 묘사하려는 창자의 의도에 의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원리에 힘입은 것으로, 서사의 전체 진행이나 사건의 전개 속도에 관계없이 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담화 공간이 허용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잇썸 춘향이난 사령이 오난지 꿀노가 오난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임만 생각하야 우난디 (...) 자연 실핀 이원성이 되냐 보고 듯난 사람의 심장인들 안이 상할 소냐 입 길워 셔룬 마음 식불감 밥 못 먹어 침불안석 잠 못 자고 도련임 생각 적상되야 피골리 모도 다 상연이라 양기가 쇠진하야 진양조란 우름이 되야 갈까부다 갈까부다 입을 싸라 갈까부다 철이라도 갈까부다 말이라도 갈까부다 풍우도 쉬여 넘고 날넌 수진 희동창 보리미도 쉬여 넘난 고평정상 동설영 고기라도 입이 와 날 차치면 나는 발버셔 손의 들고 나는 아니 쉬여 가계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날과 갖치 기루난가 무정하야 아조 이고 너의 사랑 음계다가 다른 입을 고이난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¹³⁾

선인덜을 쓰러갈 제 소리 울며 싸러간다 허트러진 머리털을 두 귀 밋헤 베리우고 비가치 흐르는 눈물 옷깃이 모두 사무찬다 엽더지며 잡바지며 붓들이여 나갈 적에 근너 말을 바라보며 이진사택 큰 아가 작난 오월 단오날에 앵도짜고 노던 일을 네가 행여 생각너냐 너의들은 팔자 조야 모시고 잘 있거라 (...) 못노라 저 뵈고리 누구를 이별하였간디 환우성 울켜 울고 쫓밧게 두건이는 피를 너여 울음우니 야월공산 어대두고 진정 제송단장이냐 네 아모리 가지 우에 붙여귀라 울것만은 갑슬 밧고 팔인 몸이 다시 어이 도라오리 춘만의 지는 쫓시 지고시버 지랴만은 사세가 부득이라 수원수구를 어이하리 (...) 약도춘풍불헤이하면 하인취속락화래라 한무제 수양공주 미화장은 잇것만은 죽으러 가던 몸이 누구를 위하여 단장하리 -이선유 창본 <심청가>¹⁴⁾

흥부덕이 할 슈 업서 죽기로 즈쳐하고 복 못탄 신세 즈탄 진향조로 설이 울

13)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345쪽.

14)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1』, 박이정, 1997, 70~71쪽.

제 맛있는 슨람덜언 귀의셔도 눈물 난다 익고익고 설운지고 복이라 흐난 거시
 엇지흐면 잘 탕난고 복두칠성임이 마련을 하시난가 제왕 슨신임이 접지를
 하시난가 심연 싱월 싱일 싱시 팔즈의 밋엿난가 슨금싱슈 설토인목 피 씨기
 에 밋엿난가 이목구비 오악으로 싱기기에 밋엿난가 적션형인 은악양션 마음
 씨에 밋엿난가 엇지흐면 잘스난지 세송 난 연후의 불의힝스 안니흐고 밤낫
 스로 버어들도 슨순구식할 슈 업고 일연 슨절 현웃이라 니 몸은 고스흐고
 가장은 부황 나고 자식덜은 아스지경 슨람 츠마 못 보겠니 츠라리 즈결혀여
 일연 쉰 안보고져 익고익고 설운지고 -신재효본 <박타령>¹⁵⁾

가령, 위 인용문들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춘향전>의 ‘장탄가’, <심청전>의 ‘선인 따라 가는 데’, <홍부전>의 ‘가난타령’은 각각 춘향, 심청, 홍부 아내가 자신의 절망, 비애, 울분 등을 극단적으로 쏟아내어 이를 지켜보는 사람조차 울리는 대목으로 유명하다.¹⁶⁾ 판소리 문학 작품들의 경우, 감상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들 대목에 이르러서는 인물들에게 동화되어 비장함을 느끼며, 특히 소리 판에서 불리울 경우 창자의 소리와 연기에 힘입어 그러한 비장함은 더욱 강렬하게 전달된다. 같은 맥락에서 <적벽가>의 ‘군사설움타령’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대목에는 조조 휘하의 이름 없는 장졸들 여럿이 차례로 등장해 각각 부모, 아내, 자식, 형제 등과 생이별한 채 전쟁터에 떠밀려 나온 심정을 눈물로 토로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진다. 이 점에서 판소리 문학

15) 김진영 외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87쪽.

16) 이유진은 판소리에서 인물이 스스로 맞서거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슬픔과 서러움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활용되는 ‘주객 대비 어법’에 대해 천착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주객 대비 어법은 주체와 객체의 속성 또는 처지를 대비하여 주체의 속성 또는 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언어의 시적 운용 방법으로서, 비애감을 자아내는 판소리의 창(唱) 대목들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유진, 「주객 대비를 통한 비애의 표출: 판소리의 서정적 어법에 대한 일고찰」,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449~470쪽.

에 형상화되는 비극적 상황은 동양 고래의 전통적인 유교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슬퍼하되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哀而不傷]”¹⁷⁾는 덕목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은 인물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주어진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는 형태로 제시되고, 그것이 특히 부조리와 모순의 성격을 띠으로써 인물의 처절한 감정적 반응도 한껏 고조된 채 동반되어 형상화된다.¹⁸⁾ 그것은 때로 슬픔, 절망, 분노 등 격양된 감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해당 인물과 공감을 이룰 만한 처지와 감수성을 지닌 청중, 독자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함께 눈물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판소리 문학에서 펼쳐지는 비극적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상황에서 인간의 삶과 이야기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대처 전략을 취하게 되는가(혹은 취해야 할 것인가)?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은 바로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한, 선인들의 살아 숨 쉬는 문학적 대응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파악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3. 담화상의 ‘비극적 상황’ 관리 전략

앞서 서술한 것처럼 판소리 문학에서는 비극적 상황에서 인물의 부정적

17) “子曰：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論語·八佾』

18) 김창현은 어떤 결과를 불행하고 참담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는 까닭인데, 비극은 이러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흔히 발견되는 현실을 매우 진지하게 반영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조리에 정면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심지어 과장하기까지 한다고 설명한다. 김창현, 『한국비극소설의 이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39쪽.

감정을 유발하고 심화하며, 그래서 감상자들도 인물에 감정이입하고 공감하여 그 감정에 적극 연루되게끔 한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상태를 마냥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내부의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 외부의 청중 및 독자들의 감정 관리 방식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이 장에서 논하려는 핵심 내용이다.

미국의 심리철학자 제니퍼 로빈슨은 인간이 자신의 안녕에 중요해 보이는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모니터하고 수정하는 인지적 능력 또한 가진다고 하였다.¹⁹⁾ 판소리 문학의 비극적 상황과 관련짓는다면, 전자는 그러한 상황에 우선 부정적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대처하고 재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 로빈슨에 의하면, ‘감정 중심의 대처 전략 혹은 인지적 대처 전략’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회피’나 ‘내적 재구성’의 형식, 즉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바꾸는 형식을 취하는데, 특히 문학의 경우 그러한 대처 전략이 형식적 장치들에 의해 고도로 실현된다고 한다.²⁰⁾ 본고는 판소리 문학에서 담화가 그러한 하나의 형식적 장치를 맡아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능하며, 이 담화는 내포작가를 배후에 두고 서술자와 인물의 발화 양 측면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²¹⁾

19) 제니퍼 로빈슨, 조선우 옮김, 『감정, 이성보다 깊은: 감정 그리고 문학·음악·예술에서의 감정의 역할』, 북코리아, 2015, 253쪽.

20) 제니퍼 로빈슨(2015), 위의 책, 257쪽 및 266쪽.

21) 이러한 유형화는 앞서 언급한 제니퍼 로빈슨의 논의에서 영감을 받아 출발했다. 그는 우리가 삶의 예측불허한 변화들을 다루기 위한 ‘대처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일이 잘못되거나 견딜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지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하거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로 쪼개어 처리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다른 일로 옮겨버리는 등의 전략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제니퍼 로빈슨(2015), 위의 책, 281쪽.

1) 해학적 완화 전략 :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기

판소리 문학이 담화 차원에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첫 번째 전략은 당면한 현실의 고통스러운 국면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는 '해학적 완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비극적 상황이 유발하는 슬픔 또는 동요와 같은 감정에서 주의집중의 방향을 바꾸어 우리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지 않게끔 하는데, 주로 서술자 발화를 통해 실현된다.

한 사례로 <홍부전>을 보기로 하자. <홍부전>의 비극적 상황은 주로 전 반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때 홍부가 처한 환경은 일단 누가 보아도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홍부가 '애고 답답 설운지고 ~ 차마 설위 못 살겠네'라며 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그가 놀부에게 일방적으로 쫓겨나 수다한 가솔들을 이끌고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여러 날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따라서 이를 접하는 청중과 독자들 역시 덩달아 비통한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19세기 <홍부전>이 활발히 유통될 당시에 자신의 생계 터전에서 쫓겨나 이곳저곳 떠돌던 수많은 서민들에게 이러한 홍부의 상황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점을 꿰고 있는 듯 <홍부전>에서는 그러한 홍부의 비참하고 울분 섞인 한탄을 실감나게 풀어내면서도, 그 앞뒤로 익살스러운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비참함으로부터 감상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홍부-인용자주) 이놈은 집지목을 내려호고 슈슈뱃 틈으로 드러가서 슈슈더 혼 못을 뷔여다가 안방 디청 흥낭 몸치 두루지퍼 말집을 짝 짓고 도라보니 슈슈더 반 못시 그져 남았고나 방 안이 널던지 마던지 양췌 드러누어 기지게 췌면 발은 마당으로 가고 디골이는 뒷갓트로 밍즈 으리 디문호고 영덩이는 울트리 밧그로 나가니 동니 슝이 출입호다가 이 영덩이 불너드리 소 호는 소리 흥뵈 듯고 째작 놀니 디성통곡 우는 소리 익고 답답 설운지고 엇던 슝 팔즈 조화 디광보국 승늑더부 삼티늑경 되어너서 고디광실 조흔 집

의 부귀공명 누리면서 호의호식 지니는고 니 팔즈 무슴 일노 말만흔 오막집의
 성소광어공정하니 지붕 말니 별이 뵈고 청턴한운 세우시의 우디창이 방둥이라
 문밖기 세우 오면 방안의 큰 비 오고 폐석초갈 찬방안의 현 즈리 벼록 빈디 등을
 피를 썩라 먹고 압문의는 살만 남고 뒷벽의는 외만 나뎨 동지 셋달 한풍이 살
 쏘듯 드러오고 어린 즈식 젓 달느고 즈란 즈식 밥 달느니 참으 설위 못살깃니
 ㉞가난흔 등 우엔 즈식은 풀므다 나하셔 한 설흔으은 되니 님힐 길이 전혀
 업셔 흔 방안의 모라 니코 명석으로 쓰이고 디강이만 니여 노흐니 흔 년석이
 쏜이 마러오면 못년석이 시리로 썩라간다 -경관 25장본 <홍부전>²²⁾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㉞, ㉞는 각각 홍부의 신세자탄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서술자의 발화로,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홍부의 처지를 장난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㉞에서는 홍부 부부가 기지개를 켜면 몸의 일부(발과 머리, 엉덩이)가 집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묘사가, ㉞에서는 홍부의 서른 명에 달하는 자식들이 명석을 쓰고 한 명이 움직이면 나머지 시종의 무리처럼 따라간다는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과장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묘사는 서술자가 홍부와 그가 처한 상황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독자(청중)와 홍부 사이의 거리도 함께 조정된다.²³⁾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는 놀부로부터 부당하게 쫓겨나

22) 김진영 외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11~12쪽. 경관 25장본 <홍부전>은 소설로 유통되었지만 현장 공연 분위기를 많이 수용하고 있으며, 다른 바탕의 경관본들도 이와 비슷하다(단, 경관본 문장체 <심청전>은 예외다). 이 경관 25장본 <홍부전>의 구술 연행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용호, 「<홍부전>의 카니발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34~239쪽이 참조된다.

23) 판소리에서 창자가 작중인물과 청중 사이에서 심리적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정서적 호소력을 발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김현주, 『판소리 담화 분석』, 한국학술정보, 1998, 34~59쪽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판소리 창자의 거리 조정 방식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판소리와 그것을 채록한 창본들을 넘어 판소리 사설과 소설들에도 그 흔적을 광범위하게 남기고 있다.

고생하는 흥부의 처지와 감정에 동화되어 비애감을 느끼는 독자(청중)가 서술자의 증개로 흥부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서술자와 공모하여 웃는 여유를 누리는 것이다.²⁴⁾ 집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숫대' 집에서 '서른 남짓'한 자식들을 데리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흥부의 처지는 도무지 긍정할 길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그 자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표출하는 흥부의 발화에 앞뒤로 붙은 서술자 발화는 그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비애의 감정에 완전히 갇혀버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학적 표현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서술자 발화는 <적벽가>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은 조조가 황개에게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는 대목의 일부다.

뜻밖에 청포선(靑布船) 천여척(千餘隻)이 벌떼갓치 느러서며 기화포(起火砲) 승기전(繩起箭)에 쭈뼛 나발(喇叭)소리(聲) 통통 고고 치며 번기갓치 달려 드러 고흥성(高喊聲)이 진동(振動)하며 한번 불을 벗석 지르니 강산(江山)이 문허지고 두 번 불을 벗석 우주(宇宙)가 바귀는 듯 세번 불을 벗석 풍도화세(風助火勢)하니 화진풍위(火振風威)해야 화렴(火炎)이 충턴턴디(衝天天地) 진동풍성(振動風聲)은 울루루 물결은 출렁출렁 전선(戰船)은 뒤뚱 돛디 직근 룡총마루 닷줄이며 모도 다 쓴어지며 장막(帳幕)도 쪽쪽 기(旗)치도 펄펄 화전궁전(火箭弓箭) 방(防)뒹 창(鎗)과 기말장 툽로구(爐口) 말음쇠 나발 징(錘) 북쌩과리 사느이 다 지여져 풍파강산(風波江山)에 윈그렁 쎄요령 어둥실 떠나가니 슈만전선(數萬戰船) 간디 업고 적벽강(赤壁江)이 뒤슬을제 불빚시 낫빚시

24) 김대행은 “비애의 정서를 웃음으로 해소하는 의도적 행위”, 즉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울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여 그 비애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웃음으로 눈물 닦기로 명명하고, 이것이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해 한국의 예술문화와 생활문화 전반에서 발견되는 한국인의 언어문화적 특징임을 지적한 바 있다.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한국 언어문화의 한 특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4쪽 및 13~89쪽 참조.

라 ㉔조조(曹操)의 백만대병(百萬大兵) 일시(一時)에 함몰(咸沒)홀 제 숨 막히고 그 막히고 초두난익(焦頭爛額) 불에 타서 이놈 죽고 저놈 죽고 안저 죽고 서서 죽고 보다 죽고 울다 죽고 즈다 죽고 참 모로고 죽고 죽기 시려도 죽고 익서 죽고 쏙 싸고 죽고 가엽시 죽고 불상(不祥)이 죽고 원통(冤痛)이 죽고 어이 업서 죽고 흙부로 짓발피여 다리 직근 팔도 썩거 물의 풍덩 빠져 죽고 가슴 쌍쌍 치다 죽고 선두(船頭)의 옷둑 나서서 네미 욱히고 죽고 횡승(橫死) 급스(急死) 직스(卽死) 몰스(沒死) 분스(焚死)할 제 날닌 장슈무용(無用)이오 일등명장(一等名將) 쓸터업다 -유일서관본 <적벽가>²⁵⁾

사실 <적벽가>에서 조조는 간웅으로서 줄곧 조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가 적벽대전에서 완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지켜보는 이들에게 비극적 이라기보다 오히려 통쾌함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조의 ‘백만 대병이 일시에 함몰’하고 마는 상황은 무죄한 군사들 개개인에게는 처참한 죽음의 순간이자, 그들에게 감정이입하는 독자(청중) 역시 비통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적벽가>의 독자(청중)는 이미 ‘군사설움타령’ 대목을 통해 줄지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여 전장에 끌려온 그들의 처지에 함께 비애감을 느꼈던 바다. 그럼에도 ㉔에서 서술자는 이들의 전사(戰死)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현을 동원해 빠른 호흡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죽고’의 계속되는 4·4조 어구 반복에서는 흥겨운 리듬감마저 느껴진다. 분명 텍스트 내부 세계 속 작중 인물들에게는 끔찍한 죽음인데, 그로부터 거리를 둔 서술자 발화가 덧붙음으로써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연대감을 느끼는 위치에 있는 감상자로서는 비장한 감정이 완화되는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극적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게끔 설계된 서술자 발화는 텍스트 외부 세계에 위치한 감상자의 감정을 덜 고통스러운 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 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5) 김진영 외 편저, 『적벽가 전집 7』, 박이정, 2003, 339~340쪽.

2) 도덕적 위안 전략 : 옛 성인들의 사례에 기대기

판소리 문학 담화에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두 번째 전략은 '도덕적 위안 전략'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다. 이는 주체가 직면해 있는 시련 속에서 긍정적인 국면, 특히 주체에게 내재한 도덕적 면모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것인데, 대체로 인물 발화를 통해 나타난다.

갓은 품팔이 끝에 매품팔이까지 시도했던 흥부를 본 그의 아내가 '이런 설움 저런 설움 다 후리쳐 버려두고 이제 나만 죽고지고'라고 목 놓아 우는 장면에서 독자(청중)는 근면하게 일해도 극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체감하고 함께 좌절한다. 또 춘향이 모진 형벌을 받고 옥방에 갇혀 '이내 죄가 무슨 죄냐. 국곡투식 아니거든 엄형중장 무슨 일이고, 살인죄 아니어든 이 형벌이 웬 일이고'하며 통탄하는 장면에서 독자(청중)는 약자를 향한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함께 분노한다. 그러나 그러한 좌절과 분노 속에서 인물들은 옛 성인들의 사례를 들어 타인 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는 길을 택한다. 그리고 그것은 독자(청중)의 감정 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흥부 역시 비감하여 이른 말이 우지말소 안연갓튼 성인도 안빈낙도호였고 부암의 담 싹튼 부열이도 무경을 맞는 지상이 되었고 산야의 밤 가던 이윤이도 은탕을 맞는 귀히 되었고 한신갓튼 영웅도 초년궁곤하다가 한나라 원용이 되어 스니 엇지 아니 거록호노 우리도 모름만 올케 먹고 되는 씨를 기다려봅시 -경판 25장본 <흥부전>²⁶⁾

자고로 성현네도 무죄하고 국계신이 요순우탕 인군네도 결주의 포악으로 함진옥의 갖쳐던이 도로 뇌야 성군 되시고 명덕치민 류문왕도 상주의 희을 입어 유리옥의 갖쳐던이 도로 뇌야 성군 되고 만고성현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어

26) 김진영 외 편저, 『흥부전 전집 2』, 17쪽.

관아의 갖쳐더니 도로 넘어 디성 되시니 이른 일노 불작시면 죄업난 니넨 몸
도 사라나서 세상 귀경 다시 할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²⁷⁾

안연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비롯해 옛날의 성현들이 곤궁함을 면치 못하다가 나중에 귀한 자리에 오른 사례를 아내에게 환기시키는 흥부의 말, 또 요·순·우·탕 임금과 주나라 문왕, 공자가 심각한 해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거룩한 경지[大聖]에 올랐던 사례를 연상하는 춘향의 말은, 무고한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일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됐을 때쯤 주체가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방어하는 하나의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인물이 비극적 상황에 처했을 때 역사 속 유명인사를 상기하는 것 자체는 판소리 문학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소대성전>에는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하던 소대성이 여상과 제갈량의 경우를 떠올리며 탄식하는 장면이 있다.²⁸⁾ 그런데 앞서 인용한 흥부와 춘향의 발언에서는 인물이 옛 성인들의 고난과 그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과 자신을 도덕적 차원에서 동일시하고 있는 데 반해, 소대성의 경우 역사 속 뛰어난 인물들과 자신을 능력의 차원에서 비교하면서 그런 자신을 알아봐 줄 사람이 어느 날에 있겠냐고 한탄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판소리 문학 속 인물들이 특히 도덕적으로 이름 높은 성인들과 자신을 견주어보는 것은 비극적 상황의 ‘의미’를 바꾸는 하나의 심리적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 전략이 성공하고 나면 주체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27)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 4』, 355쪽.

28) 그 아희(소대성-인용자주) 몸을 돌우여 누으며 탄왈 형산비옥이 돌 속의 못쳐스들 뉘 보비 줄 알며 여상의 즈최는 조디에 잇것마은 문왕의 글넘지 엄고 와용은 남양의 누어시되 유헥숙의 즈취 업스니 언이 날의 갑즈일을 만나리요 흐며 돌아누으니 그 소리 웅장호여 산천이 울니고 탈속흔 귀운이 성음의 나타나니 -완판 40장본(소대성전), 정명기 외, 앞의 책, 366쪽(띄어쓰기는 인용자).

에 대한 절망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스스로 수습할 수 있게 되는데, 앞선 인용문들에서 '우리도 마음만 옳게 먹고 되는 때를 기다려 봅세'라는 흥부의 당부, '이런 일로 불작시면 죄없는 이내 몸도 살아나서 세상 구경 다시 할까'라는 춘향의 언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즉 흥부는 자신과 아내가 지금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종래에는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춘향 역시 애초에 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젠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체가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이 포기 대상이 될 수도, 기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극도의 고난 상황에 처한 흥부와 춘향이 스스로 다지는 믿음과 신념은 텍스트 수용과도 관계를 맺게 되어, 독자와 청중 또한 마음을 끈게 한다면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갈 것[事必歸正]'이라는 기대를 갖고 불쾌한 감정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 맞닥뜨린 부당한 현실에서 과거 성인들의 고난을 연상하고 그들과 도덕적인 동일시를 수행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를 지켜보는 감상자들 역시 작중 세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불쾌한 감정, 그리고 현실세계의 여러 모순들이 주는 절망적 감정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3) 예지적 대체 전략 : 미지의 것을 앎의 형태로 바꾸기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판소리 문학 담화의 세 번째 전략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지적 대체 전략'이다. 인물 발화와 서술자 발화 양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전략은 인물이 심적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은 물론, 장래에 예측되는 부정적 결과까지도 관리하는 복선

역할을 맡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두 인용문을 보기로 한다.

[아니리] (...) [춘]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 헛 말이니 노혀 생각 말으시고 해몽(解夢)이나 하여 주시오 [효] 봉사 그새 풀렸것다 [봉] 허참 그럼 그리하지 가만있자 앵도화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여지고 허수아비 달려보이고 가마귀가 울었다 흙 음 화락(花落)하니 능성실(能成實)이요 허- 이건 바로 태몽(胎夢)인디 이 판에 태몽이 무슨 소용 있다고 경과(鏡破)허니 기무성(豈無聲)가 좋다 좋와 꽃이 떨어졌으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요 열매는 나무아들이라 나무 木 아들子を 합치니 이가(李哥)가 분명하고 거울이 바싹 깨여졌으니 한번 큰소리칠 꿈이구만 옛날 서덕언(徐德彦)이란 사람도 파경(破鏡)을 가지고 옛 연분(緣分)을 찾았거던 좋고 문상(門上)에 현우인(懸偶人)허니 인인(人人)이 개양시(皆仰視)라 사람들이 문우에 허수아비를 치어다 보는 게 아니라 만인이 자네를 모도 우리러볼 꿈이여 옥담에 가마귀 앉어 가옥 가옥 울었으니 가짜(佳字)는 아름다울 가짜요 옥저는 집 옥짜(屋字)라 어허 경사났네 오늘밤 오경에 귀현 사람 만나면 좋은 일 무수하고 오늘 일진(日辰)이 을묘일(乙卯日)이요 내일이 병진(丙辰)이라 임자생(壬子生)이라 좋다 신자진(申子辰) 삼합(三合)되어 내일신시(來日申時)에 가마탈 일 생 기겼네 걱정마소 걱정말아 [춘] 정녕(丁寧)히 그럴진댄 다음날 수고를 후히 갚오리다 -김연수 창본 <춘향가>²⁹⁾

더저 이 세상갓치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업는지라 간느코 약흔 슨름은 그 부모가 나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흔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갓흔 출던디효가 필경 림당슈 물에 가련흔 눈물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리별하고 간 하늘세상계니 하늘의 능력이 혼업시 큰 세상이라 리옥에 눈 어둔 세상 슨름과 말 못흔는 붓쳐는 심청을 도오지 못했거니와 림당슈 물귀신이야 엇지 심청을 모르리요 -광동서국본 <교정 심청전>³⁰⁾

29)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 3』, 박이정, 1997, 119~120쪽.

옥방에서 춘향이 끈 흥몽을 봉사가 길몽으로 만들어 위로할 때, 여기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미지(未知)의 불안을 기지(既知)의 희망으로 대체하는 하나의 인지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³¹⁾ 또 심청이 필경 죽고 말았으리라 생각하는 장 승상 부인과 도화동 사람들이 저마다 망녀대와 타루비를 세워 놓고 슬퍼할 때, 서술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을 운운하는 것 역시 미지의 것을 앞의 형태로 변환하여 불행 혹은 불쾌한 상황을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인 셈이다.

기실 밤낮으로 갖은 품팔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삼순구식할 수 없던 흥부 부부가 서로 붙들고 통곡할 때, 어디선가 찾아온 노승이 '부귀가 임자 없어 적선하면 오옵나니'라며 풍수학적 지식을 동원해 집터를 정해 주고, 거기 살면 '가세가 속발하여 도주(陶朱), 의돈(猗頓) 비길 테요, 자손이 영귀하여 만세유전하오리다'라고 격려하는 다음 장면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승이 대답하되 주인의 처분이니 그저난 가련이와 통곡은 웬일이요 자식은
열어신디 가세가 철빈하여 굶싸굶싸 못하여서 가련한 부부 목숨 묻져 죽기 다

30)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12』, 박이정, 2004, 259쪽.

31) <심청전>에서도 맹인연 소식을 듣고 황성길에 오른 심봉사가 불길한 꿈을 꾸자, 안씨 맹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흥몽을 길몽으로 바꾸어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심봉사 수심으로 안젓거늘 안씨맹인이 무르되 무삼 일노 질겨온 빗치 업사오니 철야 도모여 무안하여이다 심봉사 대답하되 본디 팔자가 기박하여 평생을 두고 징험흔직 막 조홀 이리 잇스면 엇잔흔 일리 싱기고 싱기더니 또 간밤의 혼 꿈을 어드니 평상 불길홀 증조라 니 몸이 불의 드러가 뵈이고 가족을 벼겨 북을 미고 또 나무넙피 찌러져 썩리를 덩피여 뵈이니 아미도 나 죽을 꿈 안이요 안씨맹인 듯고 왈 그 꿈 좃소 흥직길이라 니 잠관 희몽하오리라 다시 세수하고 분헝하고 단정이 썩러안져 산통을 눌피 들고 축사를 일근 후의 패를 푸러 글일 지어쓰되 ○신입화중하 니 회로를 가기로 ○거피작고하니 고난 궁성이라 궁의 드러갈 증조요 ○너업이 귀근 하니 자손을 가봉이라 더몽이오니 디단 반급사오니다 -원판 71장분 <심청전>(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266~267쪽)

토와셔 서로 잡고 우난이다 저 중이 탄식하여 어허 신세 가련호오 부귀가 입자
 업셔 적션하면 오옴난니 무지흔 중의 말을 듯고 미들터면 집터 하나 가리치게
 쇼승 뒤를 짚의시오 흥보 더히하여 천번 만번 치호하며 디스 뒤를 짚아다니 비
 슨임유 기국하고 무름 슈죽 들은 고디 집터를 지혈할제 명당 슈법 완연하다 감
 계룡 간좌곤항 탐낭득 거문파며 반월형 일즈안의 문필봉 충고스가 좌우의 누파
 시니 이 터의 집을 짓고 안빈하고 지니오면 가세가 속발하야 도슈 의돈 비길
테요 즈손이 영귀하여 만세유전 호오리다 -신재효본 <박타령>³²⁾

집터를 잡아주며 이런저런 낙관적인 예언을 하는 노승의 행위가 당장
 흥부네의 가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힘입어 이후 흥부는 없는 살림에도 ‘있던 집 헐어다 새 자리에 의지하고
 간신히 지낼’ 힘을 얻게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에 인용한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대목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물이나 서술자의 발언들을 통해 변환된 ‘값(기지)’의 세계
 는 과학적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믿음과 종교적(특히 민속신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판소리 문학 속 인물들이 비극적 상황
 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대개 사실적이기보다는 낭만적, 환상적으로 처리되는
 것³³⁾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인물 및 서술자 발화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
 가 이야기 세계를 접하는 독자와 청중이고, 이들 감상자가 이야기 세계 내
 부의 비극적 상황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위압감, 열쾌감 등의 감정을 효과
 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사태의
 진행으로 보아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인공의 주변 인물

32) 김진영 외 편저, 『흥부전 전집 2』, 88~89쪽.

33) 춘향이 암행어사로 남원에 돌아온 이 도령에게 구출되는 것, 심청이 옥황상제의 도움
 으로 살이나 황후가 되는 것, 흥부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로 부자가 되는 것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는 서술자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시(豫示)해주는 담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³⁴⁾ 주인공의 고난에 한껏 동화되어 있는 감상자는 불안을 희망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전략은 판소리 향유층이 실제 세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고난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취했던 삶의 방식과 태도가 텍스트 속에 적극적으로 투영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소설 작가 채만식은 <심청전>에 대해 “그 소재만은 넉넉 그리스 비극에 견줄 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막상 온전한 비극문학이 되지를 못하고 만 것은 여간 섭섭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일”³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확실히 <심청전>을 포함해 판소리 문학 작품들은 주인공이 갈등과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끔 하면서도, 결국엔 그가 불가피한 운명에 좌절하도록 끝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구적 의미의 비극과는 큰 거리가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장벽 앞에 놓여 있고, 그러한 상황은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리(모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절망하고 슬퍼하며 분노하는 인물의 모습

34) 이정원은 판소리 문학에서 어떤 일에 대한 분석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그 일에 대해 미리 행해지는 서술자 발화를 ‘화자선발화(話者先發話)’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 (이정원, 「판소리문학의 반복적 수용과 ‘화자선발화’」,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50쪽 참조). ‘예지적 대체 전략’은 이러한 화자선발화의 기능과 유사점이 있는데, 이 전략을 구현하는 주체는 꼭 서술자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춘향의 꿈을 해몽하는 봉사처럼) 주인공의 주변 인물 역시 해당된다는 차이가 있다.

35) 채만식, 「〈沈 봉사〉 작자 부기」, 정홍섭 엮음, 『채만식 선집』, 현대문학, 2009, 159~160쪽. 그는 1930~40년대에 총 4차례에 걸쳐 <심청전>을 비극적 결말로 바꾼 소설과 희곡 〈沈 봉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상세히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상의 비극성’을 논할 수 있다.

이때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항상 방치하지만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담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판소리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본고는 이 점에 관심을 갖고, 보그란데·드레슬러가 제시한 ‘상황 관리’ 개념과 제니퍼 로빈슨의 ‘감정 중심의 대처 메커니즘’ 이론을 참고하면서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해학적 완화 전략’, ‘도덕적 위안 전략’, ‘예지적 대체 전략’을 각기 따로 다루었지만,³⁶⁾ 사실 이 셋은 모두 주어진 현실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주목의 방향을 다시 정함으로써 해당 상황을 덜 슬프고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내적 방어 전략’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와 연관되어 보이기도 한다. 앞서 그리스 비극에 견주어 〈심청전〉이 진정한 비극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작가의 안타까움의 근원도 아마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들은 선량한 인물이 불행한 감정에 완전히 갇혀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미래를 기약하는 힘을 얻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듬뿍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감상자들 역시 작품 안팎에서 그러한 감정에 함께 함몰되어버리지 않도록 북돋는다. 이런 점에서 판소리 문학의 ‘비극적 상황’ 관리 전략은 판소리 향유층을 위한, 그리고 판소리 향유층에 의해 마련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전략으로서 좀 더 전향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³⁷⁾

36) 이들 전략이 판소리 문학만의 고유한 특징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심사자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다. 당시 판소리 문학과 인접해 있던 소설들의 존재, 그리고 판소리 문학과 이들 소설 간의 활발한 상호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판소리 문학만의 배타적 속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본고는 판소리 문학이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감정적 반응을 매우 확장된 형태로 그려내고 있는 만큼, 그것을 관리하는 전략들도 여타 소설에 비해 판소리 문학에서 각별히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허구적 과장이 다소간 보태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민중들이 겪는 고난을 실감나고도 진지하게 반영한 판소리 문학 작품들.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는 비극적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는 몇 가지 담화 장치들은 우리가 당장 세계를 바꿀 수 없을 때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심리적 책략들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들 심리적 책략은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이 팽배했던 조선조 말기 사회에서 선인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꾸려나간 태도와 자세가 판소리 문학 속에 녹아든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이라면 함께 믿었던 사필귀정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담화 전략이라는 데서 이들 세 가지 전략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판소리 문학이 다소 해묵은 고전으로 여겨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실은 어떤가? 시간은 두 세기를 건너왔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의 일상 역시 판소리 문학 속 주인공들의 고된 삶, 그리고 그들과 연대감을 느끼던 옛 판소리 향유층들의 신산한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질적, 기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자살률과 출산율,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화된 '헬조선', '협생'과 같은 신조어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러한 외적인 발전에 비례해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³⁸⁾ 그러면

37)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만들어주는 무엇, 그래서 독자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면서 위안과 위로의 효과를 가져오는 속성을 통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성우, 『고전소설과 대중문화』, 월인, 2021, 37쪽 참조). 이 점에서 판소리 문학의 '비극적 상황' 관리 전략을 통속적인 것으로 보고 과연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을 제기해볼지도 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판소리 문학에서 비극적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이 단순히 '편하게 만들어 줌' 그리고 '위로'를 넘어, 선량한 개인들의 삶의 방식을 '격려'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38) 더구나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 단절, 고립까지 심화되는 상황에 있다. 많은 이들이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

지금 이곳에 발 딛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의 세계 그리고 이야기 세계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또 그려나가야 할 것인가)? 판소리 문학에서 보통 사람이 맞닥뜨리는 비극적 상황을 그려내면서도, 이를 관리하는 담화 전략들을 마련해놓은 데서 엿보이는 위로와 격려의 상상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과 이야기 방식을 고민하는 데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신동훈은 이러한 고립과 단절 상황에 대한 하나의 인문적 대응으로서, 고소설과 여성의 자기서사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 안팎의 서사적 접속과 연결, 연대와 확장에 주목해 고전문학이 갖는 가치에 대해 논한 바 있다(신동훈, 「단절과 고립의 시대, 고전문학에서 찾는 연결과 소통의 길」,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5~62쪽). 그에 의하면 “지금이야말로 고전문학이 제대로 힘을 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민중서관, 1971, 1~689쪽.
- 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2010, 1~705쪽.
-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 3』, 박이정, 1997, 1~482쪽.
- 김진영 외 편저,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1~376쪽.
-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1』, 박이정, 1997, 1~352쪽.
-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1~408쪽.
- 김진영 외 편저, 『적벽가 전집 7』, 박이정, 2003, 1~466쪽.
- 김진영 외 편저, 『홍부전 전집 2』, 박이정, 2003, 1~374쪽.
- 김진영 외 편저, 『심청전 전집 12』, 박이정, 2004, 1~385쪽.
- 신해진 역주, 『완판방각본 유충렬전』, 보고서, 2018, 1~328쪽.
- 정명기 외, 『교주 소대성전』, 보고서, 2018, 1~397쪽.
- 정홍섭 엮음, 『채만식 선집』, 현대문학, 2009, 1~415쪽.
- 김대행, 『한국시가구조연구』, 삼영사, 1976, 1~254쪽.
-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한국 언어문화의 한 특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110쪽.
- 김명순, 『고전소설의 비극성 연구』, 창학사, 1986, 1~224쪽.
- 김창현, 『한국비극소설의 이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1~291쪽.
- 김현주, 『판소리 담화 분석』, 한국학술정보, 1998, 1~310쪽.
- 송성욱, 『고전소설과 대중문화』, 월인, 2021, 1~324쪽.
- 신동훈, 「단절과 고립의 시대, 고전문학에서 찾는 연결과 소통의 길」, 『한국고전연구』 53,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5~62쪽.
-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1~278쪽.
- 이유진, 「주객 대비를 통한 비애의 표출: 판소리의 서정적 어법에 대한 일고찰」,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449~476쪽.
- 이정원, 「판소리문학의 반복적 수용과 ‘화자선발화」,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49~72쪽.
- 조용호, 「〈홍부전〉의 카니발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30~259쪽.
- 허원기, 「판소리 미학의 사상적 세 층위」, 『판소리연구』 15, 판소리학회, 2003, 297~317쪽.

다비드 산테르 외 지음, 김린 옮김, 『감정의 힘』, NUN, 2016, 1~231쪽.

보그란데·드레슬러, 김태욱·이현호 공역, 『담화·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1991, 1~272쪽.

제니퍼 로빈슨, 조선우 옮김, 『감정, 이성보다 깊은: 감정 그리고 문학·음악·예술에서의 감정의 역할』, 북코리아, 2015, 1~532쪽.

ABSTRACT

Management Strategies of Tragic Situations in Pansori Literature

Lee, Hae-jin

Pansori literature depicts various tragic situations encountered by an ordinary protagonist and their emotional reactions to it, strongly evoking empathy from ordinary people who read i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ragic situations in Pansori literature and discusses several discourse strategies used to manage them.

The tragic situation in Pansori literature always frustrates the ordinary protagonist, and has irrational and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ir immense emotional reaction to it intensifies the tragedy.

However, Pansori literature does not leave such an emotional state unattended and includes internal discourse strategies to manage it,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emotional management method of the readers. The "humorous relaxation strategy," "moral comfort strategy," and "precognitive alternative strategy" discussed in this paper all correspond to a kind of internal defense strategy that makes the situation less sad and painful by turning one's eyes elsewhere in tragic situations. However, this is differentiated from simply avoiding the problem. When a good individual cannot change their life immediately on their own, it allows them to imagine an optimistic future instead of being overwhelmed by negative emotions.

Management strategies of tragic situations in Pansori literature are thus significant as comfort and encouragement strategies for people and for providing ideas for the ways we live and create stories today.

Key Words

Pansori literature, tragic situation, discourse strategy, situation management, emotion

논문투고일 : 2022.04.02.

심사완료일 : 2022.04.29.

게재확정일 : 2022.05.02.